

영도와영유권분쟁그리고 독도

오승환 22479223



독도의 사는 동식물



우리는 보통 독도의 새라고 하면 '깡이갈매기' 를 많이 떠올리는데

슴새라는 땅굴을 파는 새가 있습니다.

깡이갈매기와 함께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
이자 해양 보호 생물 로 여름 철새입니다.

“



”

-섬초롱꽃

-독도나 울릉도에서 볼 수 있다

종 모양의 꽃을 피우는 섬초롱꽃은 그 모양과
자줏빛의 색이 고와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운다.

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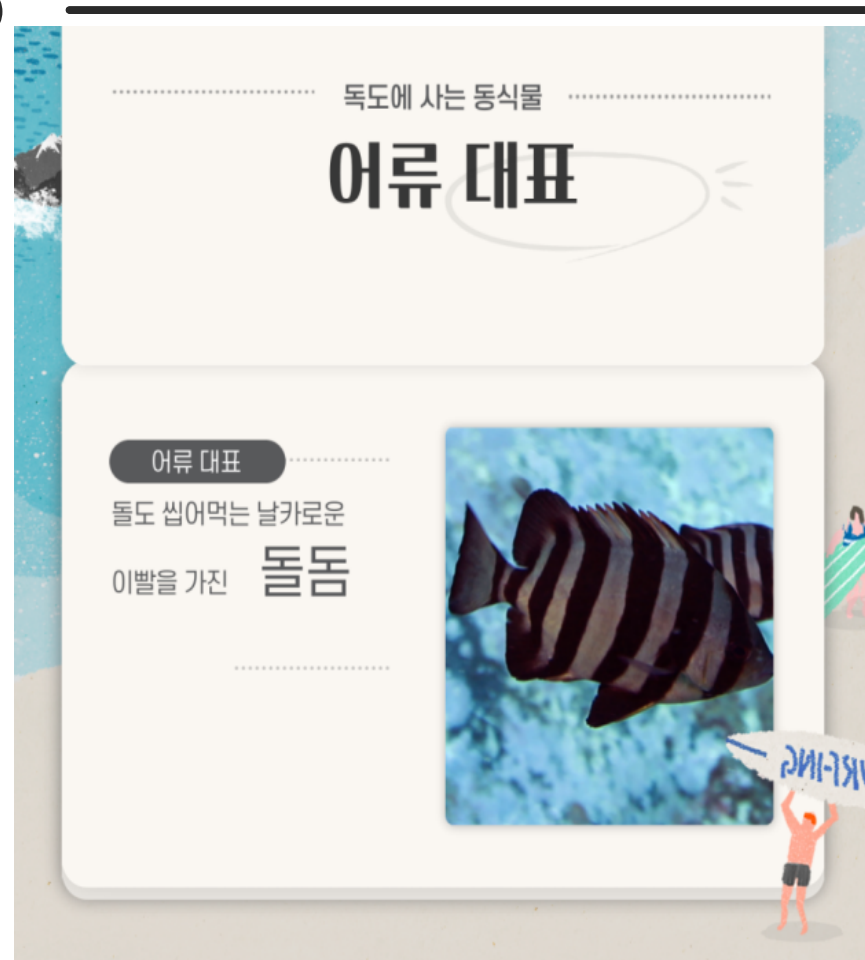
”

새는 매년 6~7월에 알을 낳고 키우다가 가을이 되면 호주나 동남 아시아로 떠난다고 합니다.

하루에 최대 약 800km를 이동한다.
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땅속에 굴을 파서 1년에 딱 하나의 알만 낳아 새끼를 기르며

낮에는 바다에서 먹이를 잡고 밤에는 새끼를 키우는 아주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

“



”

돌돔은 이빨이 새 부리 모양으로 단단하게 형성되어있어 성게나 소라종류등을 깨물어 먹을 수 있다

돌돔은 독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. 왜냐하면 최근 독도가 '갯녹음 현상'을 해결할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현재 독도에 돌돔을 1만마리 방류하여 독도의 생태계를 지키고자 노력 중이다.

“



”

큰살파는 해파리같이 생긴 척추동물에 가까운 생물로 동물플랑크톤의 일종이다. 큰살파는 우리나라에서 봄과 여름에 볼 수 있으며 독도 연안 수심 5~15m에 서식한다. 투명한 관 모양의 젤라틴으로 몸체가 이루어져 있어 위와 장, 뱃장의 형태가 바로 보인다.

“



”

도화새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독도새우의 정식명칭이다. 도화새우는 우리나라 동해에 주로 서식하고 수심150~300m에서 발견된다.도히새우는 부화 후 수컷으로 자라다가, 4살 반에 암컷으로 성전환을 한다.

“



”

독도강치는 우리나라와 일본인근 해역에 살았던 바다사자이다.

독도의 경우 강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많은 강치가 살았는데
일본사람들이 강치를 무분별하게 남획하면서 점점 강치가 멸종에 일게 된다

“



”

-황조롱이

몸길이 30~33cm이다. 매류에 속하는데, 수컷은 밤색 등면에 갈색 반점이 있으며 황갈색의 아랫면에는 큰 흑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. 머리는 회색, 꽂지는 회색에 넓은 흑색 띠가 있고 끝은 백색이다. 암컷의 등면은 짙은 회갈색에 암갈색의 세로얼룩무늬가 있다. 꽂지에는 갈색에 암색띠가 있다.